

LG전선, 구자용 E1 사장 승진

신규사업 추진 적극 전개 가능성 ... 구평희 고문 2세 경영체제

구평희 LG 창업고문(E1 명예회장)의 차남인 구자용(49) E1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돼 경영 전면에 나선다. E1(LG칼텍스가스)은 12월2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2005년 1월1일자로 구자용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구평희 LG 창업고문의 장남인 구자열(51) LG전선 부회장과 27일 LG산전 부사장으로 영입된 3남 구자균(47) 전 고려대 교수와 함께 LG전선그룹의 2세 경영체제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자용 신임 E1 사장은 서울고와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1979년 LG전자에 입사해 LG전자 미주법인 이사와 법인장(상무)을 거쳐 2001년 E1으로 자리를 옮겨 기획·재경담당 상무와 부사장을 역임했다.

E1은 “구자용 사장이 경영전면에 나섬에 따라 향후 신규사업 추진 등 회사의 새로운 사업영역 확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1은 2003년 LG전선, LG니코동제련, 극동도시가스, 가온전선(희성전선), LG산전과 함께 LG그룹에서 분리해 LG전선그룹으로 편입됐다.

또 E1은 LG전선 계열사 가운데 가장 먼저 CI를 변경했으며, 단순 동력에너지 뿐만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창조>하는 기업으로 이끌겠다는 브랜드 비전에 따라 2004년 새로운 사업영역인 범양상선 인수에 참여하기도 했다.

<화학저널 2004/12/29>